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회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on the Adolescents' Clothing Attitude

Myoung-Hee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school life adjustment,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adolescents' clothing attitudes. The subjects were 682 middle and high school boys and girls (boys: 342, girls: 340) in Seoul, Korea.

Modesty of boys was influenced by parents' education(-), academic record, achievement tendency of home, and allowance(-) ($R^2=8.6\%$), and girls influenced by affection of home(-), allowance(-), age, and academic record ($R^2=11.2\%$). Clothing satisfaction of boys was influenced by parents' education, self-control tendency of home, and school life adjustment ($R^2=19.4\%$), girls influenced by allowance, affection of home, parents' educati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control of home ($R^2=20.3\%$). Age was most important in predicting the wearing of regulative clothes of boys, followed by allowance and academic record(-) ($R^2=26.7\%$), allowance was most important in girls, followed by academic record(-), and achievement tendency of home ($R^2=19.0\%$).

The present findings mean that the more allowance adolescents received and the lower the academic record, the lower the modesty and the higher the wearing of regulative clothes.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home environment such as achievement, affection, and self-control tendency were meaningful variables that affect clothing attitude of adolescent.

Key Words : adolescent, home environment, school life adjustment, clothing attitude: 청소년,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의복태도

* 이 논문은 199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특별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청소년기(adolescence)에는 동료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외복은 이들의 소속감이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의 이성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신체를 돋보이거나 보완하는 데 외복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 시기에는 학업부진과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의복착용의 일탈(deviation) 현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등교할 때 대부분 교복을 착용하지만 일반 외출시에는 다양한 사복차림을 하므로 교복과 사복의 이중구조 속에서 소속감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학생들은 등교시에도 학교의 복장규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사복차림시에 지나치게 눈에 띄는 옷차림이나 성인용 복장 등이 청소년 지도의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오늘날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과거의 부모세대의 외생활양식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외생활 변화 현상이 부모자녀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등이 있다. 이들 환경 중에서 가정은 개인이 출생한 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며 개인의 습관, 태도,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는 데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선행연구(양승진, 강혜원, 1985; 이영해, 1988)에서 가정의 전통주의, 물질지향주의 등이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기 및 중기에 해당되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인구통계적 변인이 동시에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의복태도는 정숙성, 개성, 의복만족도와 규제복장태도를 포함하며, 규제복장태도는 등교시와 일반 외출시 학생 신분으로서 복장규범에 위배되는 옷차림을 착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가정환경은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심리적 과정을 조사하고,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적응 변인과 학교성적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현대 청소년의 다양해져가는 의복태도를 이해하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생활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및 학년(중2, 고2)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규제복장 착용도의 차이를 품목별로 알아본다.

셋째, 부모학력과 청소년의 용돈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넷째, 의복태도,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의복태도가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인구통계적 변인(연령, 부모학력, 용돈)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받는가를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기의 의복태도

청소년(adolescent)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그 연령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지만, 대략 9~13세에서부터 22~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조영승, 1997).

의복태도는 의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의복의 습관, 선택, 착용을 뜻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의복태도가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변인과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정숙성은 의복에 있어서 신체의 과도한 노출이나 타인의 주의집중을 받는 옷차림을 싫어하며 보수적이고 예의 있는 복장을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의복태도 변인 중에서 정숙성을 중요시하였으며(이은미, 1984; 장기숙, 1984; 최혜선, 1981), 여자가 남자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였다(이명희, 1983; 장기숙, 1984).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숙성이 낮았으나(최경희, 1984), 사회계층이나 소득은 정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김정희, 1990; 홍선옥, 1998). 그러나 Engelbrecht(1963), 이남범(1985)의 연구에서는 하류층일수록 여고생의 정숙성이 더 높았다. 송기숙(1990)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였으나, 김영인과 강혜원(1981)의 연구에서는 여중생이 여고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여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종교적인 가치관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였으며(Christiansen & Kernalguen, 1971; Creekmore, 1963), 독특성이나(황혜영, 1995)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박선영, 1990).

의복의 개성은 집단의 다른 사람과는 달리 독특하게 옷을 입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료집단이나 타인과 유사한 옷차림을 하려는 동조성과 반대 개념을 지닌다. 의복 개성에는 독특하고 특이한 스타일을 채택하는 독립성 추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초기에 채택하는 유행혁신의 행동이 있다(Kaiser, 1985).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관리와 옷차림에서 동료집단에 대한 동조행동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평범한 것을 싫어하여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 개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으며(Hambleton, Roach, & Ehle, 1972; 강혜원, 1974), 연령별 차이는 유덕화(1991), 정미실(1983)의 연구에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의복 동조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나, 이부희(1995), 이영선(1984)의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연령 변화에 따라 의복 동조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성을 중요시하였고(박선영, 1990; 홍선옥, 1998),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동조성을 중요시하였다(김정희, 1990).

의복만족도는 소유한 의복의 품질과 수량에 관한 만족으로서, 그 구성 요소는 디자인, 유행, 몸에 맞는 정도, 상표, 가격, 실용성, 용도 및 상황에 따른 적합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의복에 관한 만족이나 불만의 정도는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자기의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끼면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감을 지니고 여유 있게 대처하지만, 반대로 느낄 경우에는 지나치게 소심해지게 된다(Ryan, 1966). 구자명, 이명희(1994)의 연구에서는 의복만족도가 사회성 및 성취동기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의복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김양진, 강혜원, 1992; 송기숙, 1990)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정미실, 1983), 부모의 학력이 의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미영, 1984; 이경남, 이인자, 1986; 유재미, 1986). 의복불만감, 박탈감(deprivation)은 의복만족도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Francis(1990)의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의복박탈감이 높게 나타났고, 김미영, 이은영(1983)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경우에 하류층으로 갈수록 의복불만감이 커졌으며, 자아수용이 높을수록 의복불만감이 낮아졌다.

규제복장은 일정한 기준 아래 통일된 옷차림을

함으로써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명문화된 의복규칙과 사회질서의 측면에서 내재적인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에 위배되는 옷차림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은 학생다운 옷차림에 대한 규제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특정 의복에 대한 규제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청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의복규제는 학교에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는 1982년 이후 중고등학교의 교복착용이 자율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의복선택이 자유복으로 다양해졌으나 1986년부터 교복착용이 허용되면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199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등교시에 학생들에게 교복착용과 함께 복장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교할 때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역할에 알맞는 복장규범을 기대하여 지나치게 눈에 띄는 복장을 지양하며, 청소년 시기에 알맞는 복장을 하도록 권유한다. 유덕화(1991)는 학생 역할에 적절하지 않은 복장에는 색, 액세서리 등으로 화려한 옷차림을 하거나 꼭 끼는 옷, 신체노출이 심한 의복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복에 관심이 더 많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여고생은 여중생보다 규제의복의 착용을 덜 원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의복 색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자율욕구가 높은 여학생일수록 통학복 규제를 원하지 않았다(심소연, 강혜원, 1983). 또한 비행집단은 의복규제에 더 거부적이었으며(홍선옥, 1998), 학교에서 금지하는 의복스타일의 착용도가 더 높았다(허정아, 1997).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승진, 강혜원(1985)의 연구에서는 머리형에 있어서 학생과 부모 및 교사의 견해 차이가 많았고 학부모는 교사보다, 학생은 학부모보다 의복규제를 원하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2. 청소년의 환경과 의복태도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므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인간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소이고, 기본적인 생활양식이나 습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곳이므로 가정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원식(1998)은 가정환경을 물리적, 심리적 환경으로 분류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은 주거지의 환경, 경제적 지위 등을 말하고, 심리적 환경은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정의 집단 성격, 가정의 심리적 과정의 차원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학교환경의 영향이 커지는데,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학교에서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의 기초가 주어진다(고영복, 1997).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이 수행하던 교육적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학교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제도는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의 사회화적 영향이 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전병재, 1986).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속에서 교사와의 인간관계, 학업성취, 친구와의 관계 등 학교생활적응을 통하여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아 발달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학교생활적응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높으며(박은아, 1993),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는 부모-자녀 관계와 함께 학업성적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성이었다(황정규, 1997).

이영해(1988)는 가정의 사회상승주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의복을 통한 사회상승을 추구하며, 전통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구매동기가 높아 전통적으로 검약을 중시하는 한국 가정생활의 태도가 청소년의 의복구매동기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의복행동은 남학생보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더 영향받고, 남학생은 가정의 사회경제 수준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으

며, 가족구성원간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를 불안정하게 하여 외복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양승진(198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외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고, 남자는 사회상승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정숙성과 동조성을 중요시하였다. 양승진, 강혜원(1985)의 연구에서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외복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높았고, 이은주(1982)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상승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외복의 심미성, 예의성을 중요시하였다. 정숙정(1984)은 가정의 물질지향주의는 외복의 심미적 가치관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인 성취성향은 외복의 정치적 가치관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선화(1985)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기위주의 외복 착용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통주의 가치가 높은 가정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타인위주의 외복착용도가 낮았다.

홍선옥(1998)은 학교성적과 외복과의 관계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성적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였고, 유행에 대한 관심 및 규제의복 착용도가 낮다고 하였다. 김양진, 강혜원(1992)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외복만족도, 학업성취도,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외복만족도보다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청소년에게 학업성취도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소유 외복, 외복선택능력에 만족하며 부모의 외복규제에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성취도는 외복관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외복은 여고생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이며 외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가정의 가치지향성, 물리적 환경, 학업성적 등은 청소년의 외복태도 및 외복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외복태도,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정환경은 정원식(1998)의 표준화된 가정환경 진단검사 중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 관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은 가족구성원이 가정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각하는 심리적인 자극으로서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개 변인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진위형 척도이며, 각 변인당 10문항씩 택하였다. 성취-비성취는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하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개방-폐쇄는 주위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친애-거부는 가족구성원이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윗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자율-타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행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 상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적응 변인과 학교성적을 조사하였다. 학교성적은 학급내 등수를 조사하였고, 학교생활적응 변인은 김형태(1989)의 측정도구 중 14 문항을 택하였다. 이 문항은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지각과 교우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4단계의 Likert형이다. Cronbach의 α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13개 문항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으며, 1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2였다.

외복태도 중에서 정숙성, 개성, 만족도는 선행연구(이명희, 1983; 정미실, 1983; 구자명, 1993; 홍선

옥, 1998)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 변인에 따라 문항을 택하였으며, 5단계의 Likert형으로 측정하였다. 정숙성 6문항, 개성 5문항, 만족도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신뢰도 계수를 순서대로 보면 .63, .71, .74였다. 규제복장태도는 등교시나 일반 외출시에 학생신분으로서 부적절한 의복이나 신체장식을 사용하여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옷차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품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중에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작성하였다. 즉 현재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에서 제한하는 복장규제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 갈 때 학교에서 제한하는 복장과 일반 옷차림에서 학생신분으로서 복장규범에 위배되는 옷차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의복, 두발, 신발 등의 측면에서 규제복장의 항목을 선정한 결과 등교시의 규제복장은 7개, 일반 외출시 규제복장은 12개로 총 19개 항목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착용 정도에 따라 4단계 총합평정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없었다'에 1점, '한두번 있었다'에 2점, '여러번 있었다'에 3점, '자주 있었다'에 4점을 주었다. 규제복장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서는 성별, 학교, 학년, 연령, 부모의 학력, 용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용돈은 교통비, 책값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비성 지출을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남녀 중고등학교생으로서 표본은 서울의 강남지역의 S중학교와 D고등학교, 강북지역의 S중학교, O고등학교, S고등학교의 2학년 남녀 학생 682명이었다. 조사시기는 1998년 10월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중학생 43.0%(293명), 고등

학생 57.0%(389명), 성별은 남자가 50.1%, 여자가 49.9%였다. 연령은 14세가 30.8%, 17세가 39.1%였고, 13, 15세가 각각 7.2%, 5.1%, 16, 18세가 각각 10.9%, 6.8%였다. 월평균 용돈은 3만원 미만이 45.3%, 3-5만원 미만이 30.8%였으며,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이 각각 14.7%, 9.2%의 분포를 나타냈다.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이 각각 12.5%, 42.4%, 45.1%였고, 어머니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이 각각 19.1%, 52.9%, 28.0%였다. 학교성적은 1-10등이 26.4%, 11-20등이 28.3%, 21-30등이 20.1%, 31-40등이 19.2%, 41등 이상이 6.0%의 분포를 나타냈다.

IV. 결과 및 논의

1.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성별 및 학년(중2, 고2)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숙성은 주효과에서 성별과 학년 각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1>과 같다. 여자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외모의 변화가 커지므로 신체노출을 적게 하며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김영인, 강혜원(1981)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송기숙(199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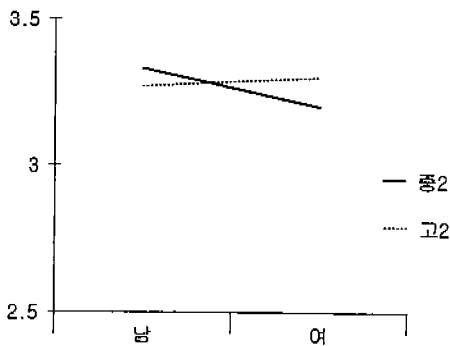
개성은 주효과를 볼 때 학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의복의 개

<표 1>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N=682)

의복	학년	성별		전체	변량원	F
		남	여			
정숙성	중2	3.33	3.20	3.28	성별(A)	.48
	고2	3.27	3.30	3.29	학년(B)	.27
	전체	3.30	3.27	3.29	A×B	3.94*
개성	중2	2.75	2.79	2.77	성별(A)	1.57
	고2	2.85	2.92	2.89	학년(B)	5.31*
	전체	2.80	2.88	2.84	A×B	.14
의복만족도	중2	3.16	2.96	3.08	성별(A)	3.64
	고2	3.12	3.10	3.11	학년(B)	.91
	전체	3.14	3.05	3.09	A×B	3.39
규제복장태도	중2	1.35	1.97	1.60	성별(A)	109.01**
	고2	1.77	2.05	1.93	학년(B)	39.68**
	전체	1.56	2.02	1.79	A×B	17.67**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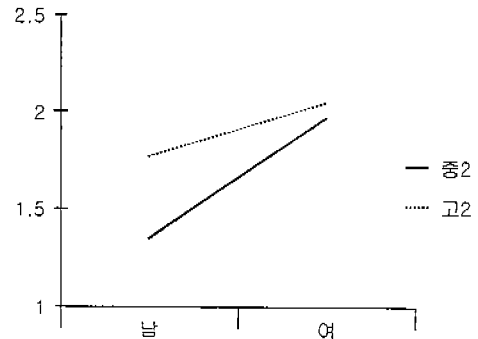
<그림 1> 정숙성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성을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11-13세의 연령층에서 동조성을 가장 중요시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한다고 한 Costanzo와 Shaw(196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으나, 정미실(1983), 유덕화(199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의복만족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규제복장태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규제복장을 더 많이 거부하며, 남자보다 여자가 거부하는 정도

가 더 높았다. <그림 2>에서 여학생은 학년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남학생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규제복장을 위반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남자는 13~16세경에 연령에 따른 성숙도의 변화가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을 통해 사회적 규제를 벗어나며, 성인용 스타일을 착용하려는 태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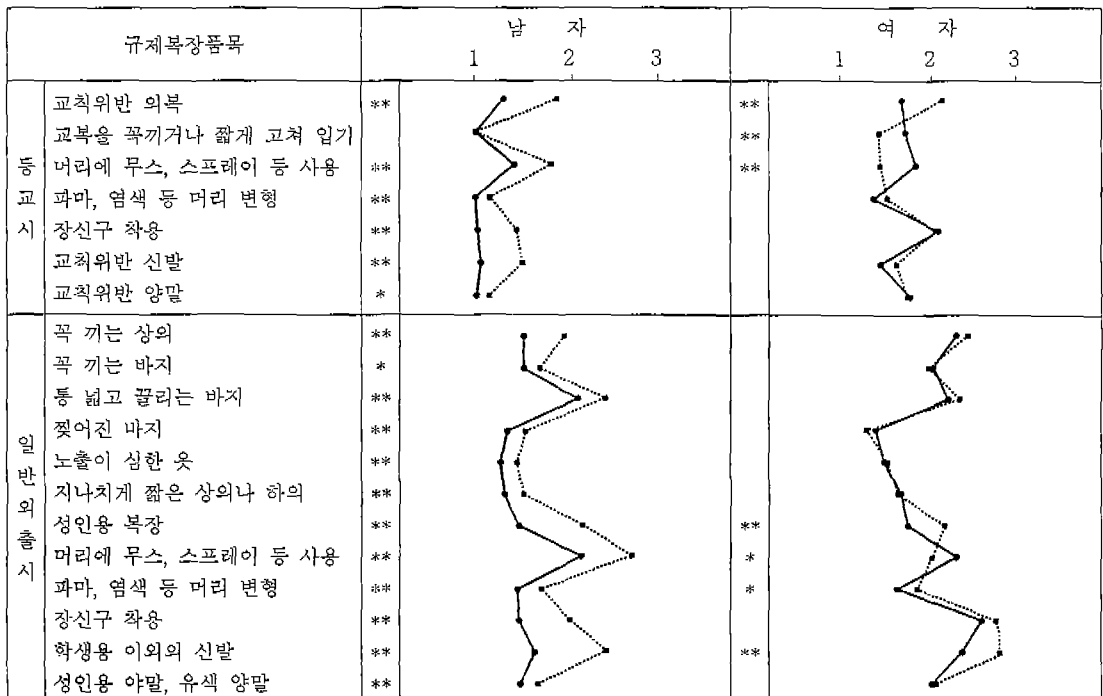
<그림 2> 규제복장태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2. 학년에 따른 규제복장 착용도의 품목별 차이

학년제에 따른 규제복장 착용도의 품목별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규제복장 착용도는 남자의 경우 교복 고쳐입기 외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규제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전체적인 평균치를 비교하면 남학생은 중고생 모두 등교시 교칙위반의 의복을 입는 것과 머리에 무스, 스프레이, 젤 등 이물질질을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일반 외출시에는 중고생 모두 머리에 이물질 바르기나 통 넓고 끌리는 힙합바지를 착용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학생용 이외의 신발, 성인용 복장, 꼭 끼는 상의, 장신구 착용 정도가 더 높았다. 장신구는 과거에는 여자들의 전용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은 남자들도 고등학생 때부터 목걸이나 반지 등의 장신구를 어느 정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7개 품목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2개 품목은 차이가 없었다. 등교시 복장 중에서 여고생은 여중생보다 교칙위반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교복 고쳐입기나 머리에 이물질질을 사용하는 것은 여고생보다 여중생의 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등교시 복장 위반 정도가 높은 품목은 여고생은 교칙위반 의복 착용과 장신구 착용, 여중생은 머리에 이물질 바르기나 장신구 착용이었다. 일반 외출시의 복장에서 여고생은 여중생보다 성인용 복장, 파마, 염색 등의 머리 변형, 학생용 이외의 신발을 착용하는 정도가 많았고, 여중생은 머리에 무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고생보다 더 많았다. 여학생의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일반 외출시에 학생용 이외의 신발, 장신구 착용, 꼭 끼는 상의, 통 넓고 끌리는 바지, 머리에 이물질 바르기 등이 비교적 많이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05, **p<.01, —중2,고2

<그림 3> 학년에 따른 규제복장 착용도

3. 부모학력과 용돈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부모의 학력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숙성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고졸 이하 집단보다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아들의 옷차림에서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개성과 규제복장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의복만족도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남

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학력이 가정의 소득과 관련되므로 부모 학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미영, 1984; 이경남, 이인자, 1986)와 일치하였다.

용돈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때 정숙성과 개성은 용돈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용돈지출이 5만원 이상인 집단은 5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남자는 용돈지출이 높은 10만원 이상

<표 2> 부모학력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학 력	의 복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n=374)	대졸 이상 (n=308)	t	고졸 이하 (n=491)	대졸 이상 (n=191)	t
정숙성	남	3.32	3.26	1.05	3.33	3.19	2.19*
	여	3.22	3.33	-1.91	3.26	3.31	-.77
개성	남	2.76	2.86	-1.49	2.78	2.86	-1.07
	여	2.89	2.86	.48	2.88	2.87	.09
의복 만족도	남	3.02	3.30	-4.26**	3.05	3.41	-4.58**
	여	2.96	3.15	-2.65**	2.98	3.19	-2.80**
규제복장태도	남	1.52	1.61	-1.73	1.53	1.64	-1.73
	여	2.07	1.97	1.56	2.03	2.01	.30

*p<.05, **p<.01

<표 3> 용돈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용 돈	의 복	3만원 미만 (n=309)	3-5만원 미만 (n=210)	5-10만원 미만 (n=100)	10만원 이상 (n=63)	F
정숙성	남	3.38(a)	3.26(ab)	3.17(b)	3.18(b)	3.17*
	여	3.35(a)	3.31(a)	3.19(ab)	2.95(b)	4.78**
개성	남	2.72(ab)	2.91(a)	2.95(a)	2.67(b)	3.31*
	여	2.74(b)	2.86(b)	3.09(a)	3.13(a)	6.38**
의복 만족도	남	3.09	3.12	3.21	3.32	1.38
	여	2.88(c)	3.11(b)	3.15(b)	3.44(a)	8.65**
규제복장태도	남	1.39(c)	1.66(b)	1.71(b)	1.94(a)	19.08**
	여	1.86(c)	2.00(bc)	2.17(b)	2.59(a)	15.51**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의 집단에서는 정숙성과 개성을 모두 중요시하지 않았고 용돈지출이 중간인 집단이 개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용돈지출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 의복만족도는 용돈에 따라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용돈이 10만원 이상인 집단이 의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집단이 각각 중간 정도였으며, 용돈이 가장 적은 집단이 의복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품질이 좋은 의복이나 다양한 의복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타난 결과이며, 선행연구 결과(김양진, 강혜원, 1992; 송기숙, 1990)와 일치하였다.

규제복장태도는 용돈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용돈이 많을수록 규제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학생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성인용 복장이나 유행스타일을

착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용돈지출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정숙성은 중요시하지 않고 규제복장 착용도가 높았으며, 용돈지출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정숙성을 중요시하면서 규제복장 착용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4. 의복태도,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의 상호관련성

의복태도,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상호관련성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숙성은 남녀 모두 의복의 개성 및 규제복장태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규제복장태도는 개성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규제복장을 위배하는 정도가 높은 청소년은 개성을 중요시하고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개성을 중요시하는

<표 4> 의복태도,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상관관계

(N=682)

가정, 학교	의복	정숙성	개성	의복만족도	규제복장태도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학교생활적응
개성	남	-.23**								
	여	-.33**								
의복만족도	남	-.01	-.11*							
	여	-.08	.12*							
규제복장태도	남	-.32**	.34**	.00						
	여	-.50**	.39**	.05						
성취-비성취	남	.11*	.05	.06	.08					
	여	-.03	.08	.12*	.16**					
개방-폐쇄	남	-.04	-.07	.13**	-.02	.13**				
	여	-.06	-.03	.07	.05	.09				
친애-거부	남	-.08	-.01	.20**	.03	.18**	.50**			
	여	-.17**	.09	.28**	.09	.11*	.44**			
자율-타율	남	-.05	.07	.29**	.08	.24**	.47**	.55**		
	여	-.03	.04	.25**	.02	.14**	.34**	.44**		
학교생활적응	남	.01	-.16**	.28**	-.10	-.01	.17**	.20**	.20**	
	여	.05	-.08	.19**	-.07	.11*	.16**	.25**	.17**	
학교성적	남	.14**	-.15**	.06	-.15**	.13**	-.01	.11**	.14**	.10
	여	.12*	-.11*	-.03	-.23**	.04	.07	.19**	.09	.22**

*p<.05, **p<.01

청소년들은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숙성 및 규제복장태도는 의복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개성은 남자의 경우 의복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여자의 경우는 의복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정숙한 복장이거나 규제복장 착용도가 높다고 하여도 그러한 의복태도가 의복만족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의복의 개성을 추구할수록 여학생은 의복에 대해 더 만족하지만 남학생은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짐으로써 의복만족도와 개성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정환경 중 성취-비성취 및 학교성적과 정숙성은 남자의 경우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어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으며,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 정숙성은 여자의 경우 친애-거부와는 부적 관계, 학교성적과는 정적 관계를 보여, 여학생의 경우 가정환경이 거부적이며 권위 지향적이고, 성적이 우수할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편이었다.

개성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남학생은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친구들과 다른 독특한 옷차림을 하려는 태도가 높았다. 또한 개성은 남녀 모두 학교성적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더 개성적인 옷차림을 하고자 하였다.

의복만족도는 여자의 경우 가정환경 중 성취-비성취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남자의 경우는 개방-폐쇄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즉 여학생은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을수록, 남학생은 개방 성향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남녀 모두 친애-거부, 자율-타율적인 가정환경은 의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가정환경이 친애적이며 자율적인 청소년일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가족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인 가정환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옷차림

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복만족도는 남녀 모두 학교성적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학교생활적응이 잘 되는 청소년들은 의복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규제복장태도와 가정환경의 성취-비성취는 남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여자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은 여학생은 규제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학생신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외모를 시도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밖에 가정의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은 남녀 모두 규제복장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규제복장태도는 남녀 모두 학교생활적응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학교성적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청소년들은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생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의복이나 신체장식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았다.

가정환경 4변인 상호간에는 남자의 경우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여자의 경우는 성취-비성취와 개방-폐쇄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 상호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대체로 가정의 성취, 개방, 친애, 자율의 성향은 한 가지가 높으면 다른 측면도 높으며, 가정의 바람직한 성향은 상호 긍정적인 관련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가정의 성취-비성취는 여자의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남자의 경우는 학교성적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즉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은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고,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은 남학생은 학교성적이 우수하였다. 가정의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은 남녀 모두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개방, 친애, 자율 성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 학교환경이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였다. 가정의 개방-폐쇄는 남녀 모두 학교성적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친애-거부는 학교성적과 정적 관

계를 보여 가족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성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성적도 우수하였다. 가정의 자율-타율은 남자의 경우 학교성적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자율적인 가정환경의 남학생들은 학교성적이 우수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여자의 경우에 학교성적과 정적 관계가 있어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이 잘 될수록 학교성적이 우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가정의 친애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이 높았으며, 가정환경이 친애적이고 자율적이며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청소년들은 외복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규제복장 착용도는 외복만족도와 관련성이 없었으나 외복의 개성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개성적인 복장과 규제복장의 착용도가 높았고 외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5. 의복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의복태도에 대하여 가정환경 변인, 학교생활적응, 인구통계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정숙성에 남학생은 부모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학교성적, 가정의 성취-비성취, 용돈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6%였다. 여학생은 정숙성에 가정의 친애-거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용돈, 연령, 학교성적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1.2%였다. 즉 부모학력 수준이 낮고 학교성적과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으며, 용돈이 적을수록 남학생은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 여학생은 가정의 거부적인 성향이 높고 용돈이 적으며 연령과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

개성에는 남학생의 경우 학교성적, 가정의 자율-타율, 학교생활적응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8.3%였다. 여학생은 용돈과 가정의 친애-거부가 개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7.2%였다. 즉 남학생은 학교성적과 학교생활적응이 낮고 가정의 자율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외복의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여학생은 용돈이 많고 가정의 친애적인 성향이 높을

<표 5> 의복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beta 계수)

(N=682)

독립변인	정숙성		개성		외복만족도		규제복장태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취-비성취	.158**	-.048	.023	.070	-.044	.006	.039	.157**
개방-폐쇄	-.021	.018	-.113	-.102	.002	-.086	-.061	-.001
친애-거부	-.086	-.208**	.001	.132*	.019	.179**	-.008	.089
자율-타율	-.015	.039	.173**	.036	.209**	.141*	.031	-.054
학교생활적응	.040	.082	-.163**	-.097	.209**	.154**	-.021	-.072
학교성적	.160**	.127*	-.176**	-.058	-.035	-.086	-.108*	-.167**
연령	.014	.164**	.026	.029	-.013	.016	.354**	-.077
부모학력	-.170**	.071	.100	-.056	.242**	.158**	.099	-.076
용돈	-.118*	-.186**	-.030	.164**	.079	.204**	.232**	.321**
상수	3.271	2.124	3.248	3.015	1.555	1.343	3.793	51.166
R ²	.086	.112	.083	.072	.194	.203	.267	.190
F	3.461**	4.614**	3.351**	2.846**	8.903**	9.333**	13.461**	8.580**

*p<.05, **p<.01

수룩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의복만족도에 남학생은 부모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자율-타율과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9.4%였다. 여학생은 용돈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친애-거부, 부모학력, 학교생활적응, 가정의 자율-타율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0.3%였다. 남학생은 부모학력과 가정의 자율적인 성향이 높고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용돈이 많고 가정의 친애, 자율적인 성향과 부모학력이 높고, 학교생활적응이 잘 될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규제복장태도에 남학생은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용돈과 학교성적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26.7%였다. 여학생은 규제복장태도에 용돈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학교성적, 가정의 성취-비성취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19.0%였다. 즉 남학생은 연령과 용돈이 많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규제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았다. 여학생은 용돈이 많고 학교성적이 낮으며 가정의 성취 성향이 높을수록 규제복장의 착용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청소년은 주로 용돈이 많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규제복장 착용도는 높고, 정숙성은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가정의 자율적인 환경과 부모의 학력,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의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학생은 규제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높았다. 가정환경 중 개방-폐쇄적인 성향은 의복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친애-거부는 특히 여학생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전기 및 중기에 해당되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인구통계적 변인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의 남녀 중고등학생 682명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은 남녀 모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중요시하였고, 정숙성은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더 높았다. 즉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변화를 의식하여 의복의 신체노출을 적게 하고자 하므로 정숙한 옷차림을 선호한 것이라고 본다. 규제복장에 대한 태도는 성별, 학년에 따라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복장 위반의 정도가 더 높았다.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여학생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은 차이가 있어 남자 중학생보다 남자 고등학생이 규제복장을 위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남자는 13-16세경에 연령 증가에 따른 성숙도의 변화가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의 사회적 규제를 벗어나려는 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규제복장 품목 중에서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주 착용하는 것은 등교시 교칙위반 의복 착용, 통뿔고 끌리는 바지 착용, 머리에 이물질 바르기 등이었고, 여학생은 장신구, 학생용 이외의 신발, 꼭 끼는 상의의 착용이 많은 편이었다. 머리에 이물질 바르기는 여자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으나, 남자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

셋째, 남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 용돈 지출이 많을수록 개성과 규제복장 착용도가 높았고,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넷째, 청소년들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 중에서 개

방, 친애, 자율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잘 되었으며, 친애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았다.

다섯째, 가정의 친애 및 자율 성향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은 가정의 개방 성향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여학생은 가정의 거부 성향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였고, 성취 성향이 높을수록 규제복간 착용도가 높았다. 즉 성취성향이 높은 가정인 경우 여학생에게 다양한 옷차림의 기회를 더 많이 허용하게 되므로 성인용 복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여섯째, 남녀 모두 학교생활적응이 잘 될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규제복간 착용도와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높았으며,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즉 성적 향상에 관심이 낮은 학생들이 일반적인 규범이나 학교규범을 준수하는 태도가 낮아 청소년에게 규제되는 성인용 복장이나 특이한 복장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정숙성에 남학생은 부모학력(-), 학교성적, 가정의 성취-비성취, 용돈(-)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R^2=8.6\%$), 여학생은 가정의 친애-거부(-), 용돈(-), 연령, 학교성적의 순으로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R^2=11.2\%$). 개성에 남학생은 학교성적(-), 가정의 자율-타율, 학교생활적응(-)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R^2=8.3\%$), 여학생은 용돈과 가정의 친애-거부가 영향을 주었다($R^2=7.2\%$). 의복만족도에 남학생은 부모학력, 가정의 자율-타율, 학교생활적응이 영향을 주었고($R^2=19.4\%$), 여학생은 용돈, 가정의 친애-거부, 부모학력, 학교생활적응, 가정의 자율-타율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R^2=20.3\%$). 규제복간태도에 남학생은 연령, 용돈, 학교성적(-)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R^2=26.7\%$), 여학생은 용돈, 학교성적(-), 가정의 성취-비성취의 순으로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R^2=19.0\%$).

종합적으로 볼 때 남녀 청소년들은 용돈이 많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숙성은 중요시하지 않았고, 학생신분에 부적절한 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가정의 자율-타율, 성취-비성취, 친애-거부적인 환경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으며, 친애적이며 자율적인 가정환경의 청소년들과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의복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즉 청소년들은 가족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느끼며 자율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랄수록,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될수록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껴 외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특정 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가정환경을 폭 넓게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하며, 가정환경 중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장의 직업, 가족구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좀 더 폭 넓게 파악하기 위하여 동년배 집단의 영향, 매스미디어의 영향, 청소년 비행 등 다른 사회적 환경이나 심리적 특성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청소년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의복착용 동기 및 의복 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연세논총, 11, pp.349-374.
- 고영복 편(1997). 사회심리학개론.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107.
-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 대학원.

- 구자명, 이명희(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pp.153~163.
- 김미영(1984). 여자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 대학원.
- 김미영, 이은영(1983).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2), pp.27~35.
- 김선화(1985).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의복행동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양진, 강혜원(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pp.197~209.
- 김영인, 강혜원(1981).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 pp.13~20.
- 김정희(1990). 서울시 남·녀고교생의 교복·자율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축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선영(1990). 자아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은아(1993). 가족구조,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기숙(1990). 여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 요인 분석과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소연, 강혜원(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연구: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pp.53~59.
- 양승진(1986). 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 연구: 원주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pp.27~36.
- 양승진, 강혜원(1985). 남자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시내 남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pp.29~36.
- 유덕화(1991). 여자중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학교에서의 복장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재미(1986). 학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여자중학생의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남, 이인자(1986). 사춘기 여학생의 의복행동, 가정배경 및 학급내 인기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pp.19~26.
- 이남범(1985). 문제여고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의식과 자아개념과의 상관 연구: 충청남도내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1983).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부희(1995). 남녀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선(1984). 자유·보수주의적 태도와 의복에 대한 태도와 관계연구: 유행과 동조성-개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1), pp.69~74.
- 이영해(1988).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의복관심, 상표인지, 의복구매동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은미(1984).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1982).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 행동과의 관계: 서울 시내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기숙(1984). 고교생의 의복행동과 창의성과의 관계: 인천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병재(1986).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p.300.
- 정미실(1983).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숙정(1984). 가정환경변인과 개인의 의복가치관과의 관계: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원식(1998). 가정환경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_____(1998). 가정환경진단검사Ⅱ,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조영승(1997).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pp.11~12.
- 최경희(1984).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혜선(1981).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황혜영(1995). 남·녀 대학생의 의복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태도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정규(1997).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청소년문화, 연구논총 97-8,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291~344.
-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Christiansen, K., & Kernaleguen A.(1971). Orthodoxy and conservatism modesty clothing selec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pp.251-255.
- Costanzo, P. R., & Shaw, M. E.(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4), pp.967-975.
- Creekmore, A. M.(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Engelbrecht, W. M.(1963). Modesty in relation to woman's dress.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Francis, S. K.(1990).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perceived clothing depriv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4), pp.1~6.
- Hambleton, K. B., Roach, M. E., & Ehle, K.(1972).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2), pp.29~33.
- Kasier, S. 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p.315-316.
-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290-291.